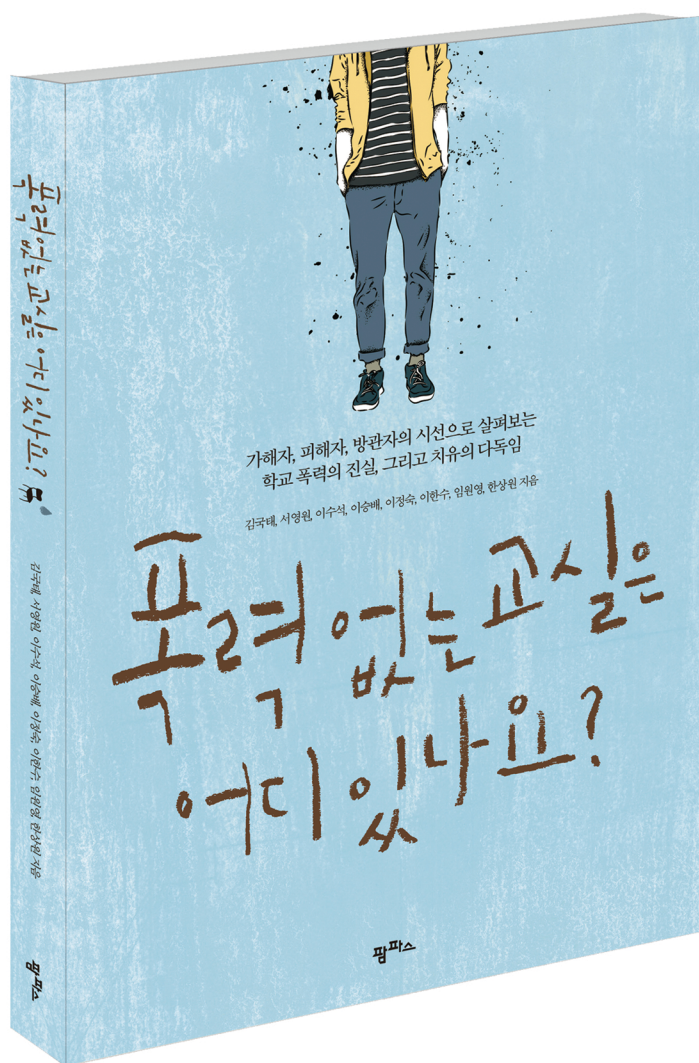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폭력 없는 교실은 어디 있나요?

김국태 | 서영원 | 이수석 | 이승배 | 이정숙 |
이한수 | 임원영 | 한상원 (지은이) | 팜파스

팜파스

온작품읽기, 꿈꾸는도서관이 함께합니다.

‘온작품읽기’는?

온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 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을 책을 고르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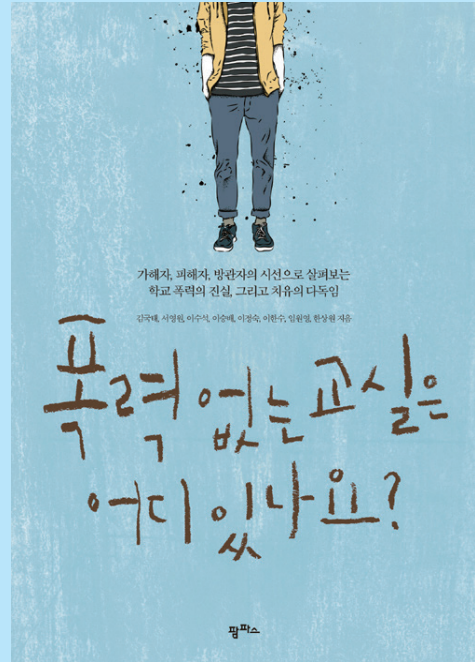
꿈꾸는도서관에서는

- ‘온작품읽기’에 알맞은 좋은 책을 선정합니다.
- 교과 과정, 수업 시간을 고려한 ‘온작품읽기’ 수업지도안을 제공합니다.



※수업지도안은 ‘꿈꾸는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꿈꾸는도서관 홈페이지 : <http://www.dreamlib.co.kr>



폭력 없는 교실은 어디 있나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학교 폭력의 진실,
그리고 치유의 다독임

김국태, 서영원, 이수석, 이승배, 이정숙, 이한수, 임원영, 한상원 지음
148×210mm | 252면 | 값 13,000원 | 분야: 청소년>생활, 자기관리/ 청소년>인문, 사회
발행: 2017년 11월 15일 | ISBN 979-11-7026-181-0 (43370)

책 소개

이 책은 학교에서 ‘폭력’을 맞닥뜨린 청소년들의 상처에 감아주는 붕대와도 같은 책이다. 십 대들의 갈등과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온 선생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대책이 눈길을 끈다.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상처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해자가 된 아이들에게는 ‘지금 폭력을 그치는 용기와 방법’을 전해, 폭력의 끈을 놓을 수 있게 돕는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침묵은 동의라는 말이 있듯이, 방관하는 이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관하는 이들에게는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주어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게끔 돕는다.

“때리거나, 맞거나, 혹은 지켜보거나”

인정하기 싫은 진실, 지금 이 교실에서 폭력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표지와 제목 보며 느낌 말하기

- 표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 표지에 들어간 일러스트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나요? 인물 주변의 작은 부스러기는 무엇을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것일까요??

목차를 살펴보며 이야기 나누기

- 차례에 나오는 꼭지 제목들은 꼭 대화하는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을까요?

목차를 살펴보며 이야기 나누기

- 교사가 읽어주기, 짝과 번갈아 읽기, 한 명씩 돌아가며 읽기, 혼자 읽기 등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읽기 방법을 의논하기
- 옴니버스 형식으로, 수업 차시로 인해 한권 읽기가 불가피하게 힘든책이라면, 무엇을 추려서 보고 싶은지 의논하기

읽어주기

1쪽지씩 나누어 읽어주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읽다 멈칫하기

페이지	내용
23쪽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연서가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 - 혜련이는 왜 그때부터 연서가 거슬리기 시작했을까요? 연서에 대한 감정이 어디서 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30쪽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는 가해자였던 성호가 집에서는 피해자였어요. - 성호의 상황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지 의견을 나누어볼까요? 왜 폭력의 피해를 아는 성호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일까요? - 가해자 성호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성호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38쪽	더 안타까운 것은 희준이는 정말 '폭행 학생'이라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41쪽	경덕이처럼 또래 상담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혹은 또래 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52쪽	어떤 행동이 되었든 그런 행동들이 맞을 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 우리 주변에 쉽게 '맞을 짓'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거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59쪽	여러분도 "욕은 다 하는데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 일상에서 욕을 쓰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쓰나요? 어떤 마음으로 욕을 하나요? 그 욕을 듣는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야기해보아요.
74쪽	'그냥', '거슬려서', '재수 없어서' 따위로 얼버무렸던 이유 속에 담긴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얼버무리며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따돌리고 싶어진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유를 꼼꼼히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거나, 적어봐요.

페이지	내용
93쪽	나 혼자 외톨이가 될까 두려워, 친구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따라 한 적은 없었나요? - 소극적인 가해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내가 생각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피해자에게도 똑같은 강도로 느껴질까요?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잘못이 덜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108쪽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다. 내 자리로 가서 앉는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 연서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연서와 같은 친구를 본 경험이 있나요? 그 기분은 어떨지 이야기해보아요.
133쪽	"제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저도 말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더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 따돌림이나, 폭력의 이유를 자신의 성격으로 돌린 적이 있나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지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소극적인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말솜씨가 없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이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아요.
172쪽	우리는 흔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 만약 내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신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상해보고 이야기해봅시다.
178쪽	이런 교실의 상황에서 꼭 누군가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건 굉장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 나는 혹시 친한 친구가 없어 친구 사귀기에 자신감을 잃었던 적이 있나요? 교실 밖에서 친구를 만날 기회가있나요? 있다면 그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나요?
184쪽	연서를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렵다. -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각각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190쪽	지금 이 땅의 학교에선 이미 천사들도 학교 폭력의 이야기에 면역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페이지	내용
194쪽	단순히 그 자리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이 관심거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가만히 있는 행동에 대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방관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피해자의 아픔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반대로 내가 피해자일 때 방관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해 보아요.
198쪽	쌈은 폭력에 대한 반대 개념은 '관계 속에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210쪽	방관에서 적극적 방어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 적극적 방어자로 행동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결과와 감정을 안겨 주었나요? 적극적 방어자가 되는 좋은 방편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18쪽	만일 민수가 비슷한 폭력 행위를 또 벌였을 때 그때 피해 학생이 이번에는 민수보다 더 절친했던 친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나는 절친한 친구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나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둘다에 친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서로 의논해보아요.
244쪽	학교 폭력은 '액션 영화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 학교 폭력을 그저 흥밋거리로 생각한 순간이 있나요? 내 일이 아닌 싸움에 대해 나는 주로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혼자읽기

가해자 파트에서 공감되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밑줄 치며 읽기

피해자 파트에서 공감되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밑줄 치며 읽기

방관자 파트에서 공감되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밑줄 치며 읽기

읽기 후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책의 구성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어보기

등장인물의 상황을 나와 연결 짓기

파트 서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맡아 연극을 하거나 결말을 바꾸어 보기

별 평점을 매긴 후 까닭 이야기해보기

별표로 공감한 정도를 표시하고, 각자 까닭 말하기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이유를 말하기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은 사람을 추천하고 이유 말하기

편지쓰기

책속에 등장한 인물, 혹은 책으로 인해 떠오른 내 주변의 인물에게 느낀 감정을 편지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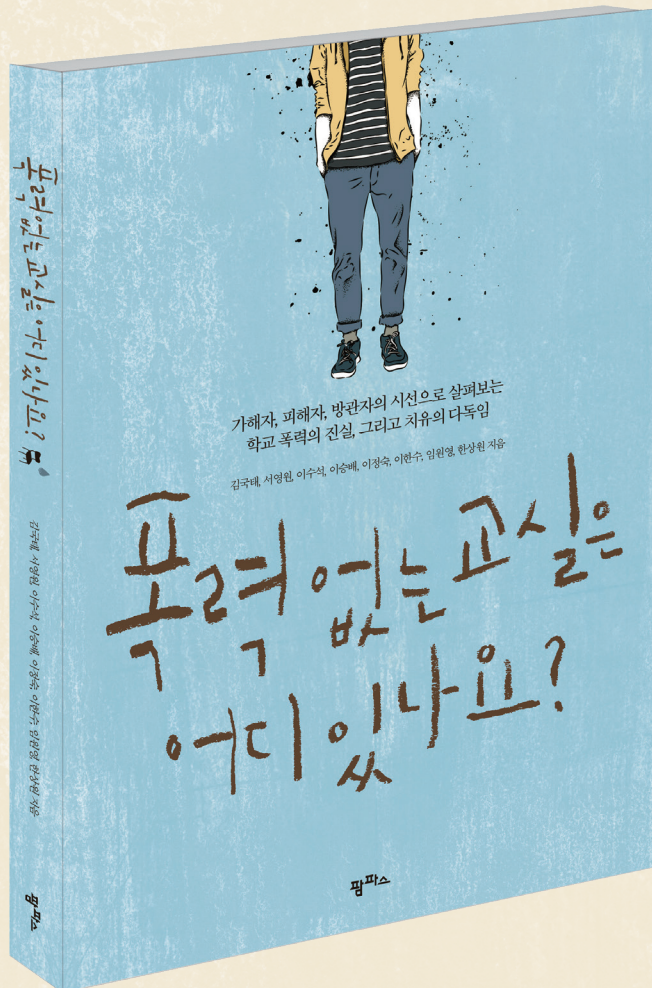
.....

.....

.....

“여기서 그치는 용기가 필요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3인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그날의 일들...



“
때리거나,
맞거나,
혹은
지켜보거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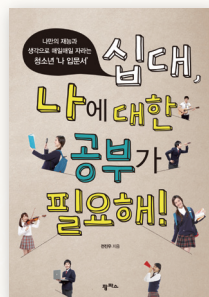


폭력 없는 교실은 어디 있나요?

글 김국태, 서영원, 이수석, 이승배,
이정숙, 이한수, 임원영, 한상원 지음
가격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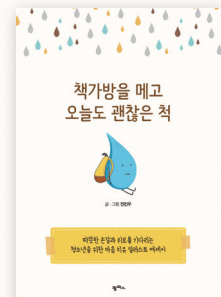
꿈,
지금 꼭 정해야 하나요?
〈세종도서 교양부문〉
글 김국태 외 8인



십대,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세종도서 교양부문〉
글 전진우



십대로 사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글 강선영



책가방을 메고
오늘도 괜찮은 척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글 전진우

팜파스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18 팜파스빌딩 2층
전화 02) 335-3681 FAX 02) 335-3743



팜파스

대표전화: 02-335-3681 | 팩스 : 02-335-3743 | 이메일 : pampasbook@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18 팜파스빌딩 2층